

2026년 종로-성균 동아시아 아카데미 프로그램 세부 내용

○ 강의개요

- 강 좌 명 : “종로, 권력과 일상이 만난 공간”
- 교육기간 : 2026. 9 .3.(목) ~ 10. 22.(목) 매주 목요일 14:00~17:00
- 교육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강의내용

1강	주제	정치로 종로 읽기, 정치 공간의 빛과 그림자
강사	진재교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세부 내용	종로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정치 공간의 중심이다. 궁궐과 문묘, 종묘와 시작단을 비롯하여 국정을 담당하던 전각(殿閣)도 종로에 있었고, 다수의 집권층이 거주하던 공간도 종로다. 종로라는 공간에서는 국왕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가 하면, 다양한 정치 활동도 일어났다. 정치와 결부된 종로는 정치와 국정 운영의 과정에서 밝고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정 운영의 이면에서는 지배 질서에 반하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종로라는 공간은 정치와 어떤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 그 빛과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자.	

2강	주제	조선 왕들이 사랑한 역학(易學)
강사	안승우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교수)	
세부 내용	누구나 권력을 꿈꾸곤 한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지킬 것이 많다는 것, 책임질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 최고의 권력이 있었던 종로. 조선의 왕들이 올바로 권력을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 고민했던 과정 중에 역학(易學)은 하나의 빛나는 지혜를 제시해 주었다. 이 강좌를 통해 세상을 보다 넓게 보는 눈을 주는 역학과 조선의 왕들이 만난 순간들을 살펴보고 우리 삶의 지혜로 가져오길 바란다.	

3강	주제	왕에게 바치는 신하의 고언 : 퇴계의 성학십도
강사	이영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세부 내용	종로의 왕궁에서 살았던 왕은 대체로 궁 밖을 나가는 일 없이 정치를 하였다. 그렇다면 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많은 국사를 처리하였을까? 퇴계 이황은 왕이 국사를 처리할 때의 기준을 그 마음에서 단서를 찾아서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과 해설을 구비하여 왕에게 바쳤다. 퇴계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성학십도』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 『성학십도』를 중심으로 국왕에서 일반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어떻게 찾아가고 그 마음의 확인을 통해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강	주제	성균관 너머에 핀 꽃, 『반림영화(泮林英華)』 : 성균관 공노비 반인(泮人)의 시
강사	이라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세부 내용	성균관의 공노비인 반인(泮人)은 고려말 안향이 바친 노비에 기원한다. 때문에 개성 사람 특유의 기질과 언어 및 풍속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집단적인 성격을 형성했다. 그들은 조선 초기부터 성균관 주변의 반촌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살면서 성균관 제반의 일에 부역하고 동시에 소 도축 및 소고기 판매를 했던 신분적으로 매우 비천한 조선 시대의 오랜 소수자이다. 그런 그들이 양반의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받고 양반이 향유한 시문학을 창작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굴되어 번역된 『반림영화(泮林英華)』는 반인들이 창작한 한시를 모은 시집으로 수집의 주체가 양반이었다는 것 역시 특이한 점이다. 양반이 인정한 반인들의 한시는 어떠한 소재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들의 한시가 표방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한시를 창작하고 이렇듯 한 권의 책으로 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반인이 지은 시를 직접 감상하며 그들의 삶과 문학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5강	주제	도성문 : 왕국의 통제 장치
강사	홍순민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세부 내용	도성은 한성부를 둘러싼 도시 성곽이다.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 쌓은 도시의 경계선이자 방어 장치였다. 도성은 군사 시설이지만 국방 시설이라기보다는 임금을 보호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정치 권력의 구현 시설이었다. 종묘 궁궐과 더불어 다른 도시에는 있을 수 없는 시설로서 한성부를 조선의 왕도이자 수도로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이었다. 내성인 궁성에 호응하는 외성으로서 임금의 존재와 권위를 드러내는 왕권의 표상이었다. 도성문은 닫으면 출입만이 아니라 통행이 금지되는 강력한 통제 장치였다.	

6강	주제	식민지 시대 종로의 핫플레이스
강사	박현수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대우교수)	
세부 내용	식민지 시대 문학 텍스트에는 경성이 자주 등장한다. 남촌의 본정이 일본인의 공간이었다면, 북촌의 종로는 조선인의 길이었다. 대부분 식민지 시대라고 하면 친일과 항일로 나누어진 풍경을 떠올린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친일도 아니고 항일도 아닌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 종로는 그들의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채워진 공간이기도 했다. 이 강의는 문학 텍스트를 통해 우미관, 화신백화점, 다방 제비 등 종로의 핫플레이스를 방문하고, 그곳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7강	주제	반궁(성균관, 문묘)과 반촌(대학로)의 과거 현재 미래
강사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세부 내용	종로구 성균관과 문묘 일대는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자 국가 이념의 중심 공간으로서, 오늘날의 대학과 캠퍼스타운 개념에 대응되는 역사적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성균관은 조선의 국립대학으로 기능하였으며, 현재의 대학로 일대는 교육·주거·의례·상업 기능이 복합된 조선시대의 캠퍼스타운이라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성균관이 반궁(伴宮)의 성격을 지닌 교육 공간으로서 동반수와 서반수라는 이중적 공간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동반수가 반촌을 통해 도시 생활권과 연결되고, 서반수가 창덕궁으로 이어지며 왕권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었던 공간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성균관 일대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정치·의례·도시 조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였음을 고찰한다. 아울러 이 지역의 초기 건축적·도시적 열개가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형·계승·단절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조선시대 캠퍼스타운의 공간 논리가 근대와 현대의 도시 구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성균관·문묘·대학로 일대가 지닌 건축적·도시적·역사적 가치와 함께, 향후 보존과 재생, 그리고 동시대 도시 속에서 이 지역이 직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